

하반기 여대생 '취업문' 넓어졌다

93.9.2

최근 삼성그룹이 여성전문인력 5백명을 공채한다는 모집공고를 내고 여대생 취업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원서 교부를 시작한 지난달 30, 31일 이들 동안 1천여장의 지원서가 나갈 정도로 삼성의 여성전문인력 공채는 여대생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새 1천여장 나가

뽑는 분야도 연구·기술직, 소프트웨어직, 국내 및 해외영업직, 경영지원직 등 이른바 '남성영역'으로 꼽히는 전문분야다.

삼성의 파격적인 여성전문인력 공채계획은 벌써 다른 기업들에 영향을 끼쳐 몇몇 대기업이 '여성전문인력 공채'를 내부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는 지난 여름 실시한 인턴제를 거쳐 여대생 1백50명을 채용하기로 이미 확정된 상태, 여기에 덧붙여 가을 취업철 동안 그룹내 회사별로 선발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여대생 취업자는 5백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대우그룹 인사팀은 밝혔다. 대우는 또 10월초 이공계 석·박사 출신으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삼성·대우등 대기업 1천5백여명 예정 모집분야도 연구직 중심 전문화 추세



삼성그룹의 여성전문인력 모집지원서 교부 창구는 매일 여대생들로 붐비고 있다.
장철규 기자

8백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1백명 정도는 여성이 될 것으로 대우그룹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달말께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 8백여명을 선발할 것으로 알려진 한진그룹은 여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약 40

%를 여성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해마다 이공계통을 전공한 대졸 여성인력을 뽑아온 포항제철은 올해는 여성인력을 따로 뽑지 않고 남녀 함께 공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초쯤 채용규모를 확정할 현대, 럭

키금성, 선경 등은 여성사원 채용을 대체로 50명 수준으로 잡고 있다.

연세대 직업보도실은 올 하반기 대기업의 여대생 채용이 약 1천5백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이런 채용계획은 여대생 졸업예정자 7만여명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취업난에 허덕이는 여대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전공인력 인기

포항제철 홍보실 이태고 계장은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이 전기 전자 기계 금속 토목 산업공학 등 이공계통을 전공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대생들이 인문계에 집중돼 있어 채용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 직업보도실 윤유식 취업주임은 "대기업의 채용동향에 맞춰 이제 여대생들이 인문계 중심의 사무직만 선호할 게 아니라 영업, 경영 등과 같은 남성영역에도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로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연숙 기자